

「The Art of Fiction」의 理解

Kim Chung-II
(Hannam University)

Kim, Chung-II. (1998). Understanding 「The Art of Fictio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4, 269~284.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understand Henry James's theory of the novel and to clarify the importance of him as a theorist. He developed many literary techniques through his dozens of works. But it is more important that he is a theorist who established the unique theory of novel through his critical essays. I arranged James's early theories, focusing on "The Art of Fiction" that was one of his major essays written in 1884. His main idea was that the purpose of novel was to represent life. The "experience" that James emphasized was composed of characters, impression and consciousness. "Psychological Realism", which is James's unique realism, reflected his interests in the inner mind of man. James believed in the capacity of human imagination as the source of creative inspiration and its ability to perceive reality in a manner that is more intense and comprehensive and transform it into a more balanced and orderly ideality. Henry James always insisted on the importance of writer's imagination. Another important imagination in Henry James's novel is the character's imagination. I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consciousness, the heart of the James's literary world. James devised the new form of novel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representation of mind. At this point, it is said that James was the pioneer of literary criticism. He evoked the trend of the early 20th century.

I

Henry James가 작품활동을 시작한 것이 1860대 중반이요, 그의 중기의 대표작 *The Portrait of a Lady*가 1881년에 나타나고 그의 새로운 주장을 피력한 “The Art of Fiction”이 1884년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작품활동시기는 소위 Victorian Age의 영광에 음영이 드리우기 시작하는 무렵에 해당된다. 18세기 중엽 이후 나름대로 정연하게 지속되어 온 영국 소설의 흐름은 그 전통에 따라 발전해 오다가 George Eliot 이후 소위 세기말적 예술전반의 조류에 부딪쳐 여러 갈래의 양상으로 불안한 분화의 조짐을 드러낸다.

세기말의 불안감은, 한 세기를 지탱해 왔던 이념과 제도와 양식과 가치들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 그 생명력을 상실하는 데서 비롯된다. 서구의 경우, 19세기의 영광은 합리적 이성과 자연과학의 발달이 주도하였다. 이성과 과학에 입각한 산업혁명, 부르주아문화, 제국주의적 문명이 세계사를 장악하면서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19세기말, 17세기를 걸쳐 주로 갈릴레이와 데카르트 그리고 뉴턴에 의해 성립된 기계론적인 세기관에 대한 부정과 회의가 팽배하면서 세기말적 혼돈을 야기했다. 새로운 20세기를 위해서는 19세기의 정신과 전통을 철저히 부정해야만 했다. 20세기초의 모더니스트들은 19세기와와의 완벽한 결별을 주장하며, 그것을 ‘위대한 단절 The Great Divide’이라고 불렀다.

소설가로서 Henry James의 업적은 신, 구 양대륙을 무대로 두 대륙을 비교한 국제 주제라는 독특한 시점과 도덕의식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소설 기법의 개발, 사실적인 묘사의 중요성과 함께 내면의 동기와 의식을 탐구하려는 심리 소설의 개척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James의 보다 중요한 특징은 작가로서의 이러한 업적 외에도 소설 이론에 관한 여러 편의 에세이와 여러 작가와 작품들에 관한 비평문을 통하여 독자적인 소설이론을 확립한 이론가라는 점이다. 즉, 그는 플롯과 인물, 사실과 상상, 경험의 영역과 개인적 인상, 삶과 예술, 스토리와 구조 등 소설을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의 관계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해답을 주고 있다. James 이전에는 소설에 관한 독자적인 이론이 없었고, 이는

James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James 자신도 “The Art of Fiction”에서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my art is a delightful spectacle, but the theory too is interesting”(346)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론에 대한 그의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는 영국소설의 문학성, 예술성 부재 현상에 주목하고 그것을 처음으로 지적함으로써 비평과 창작 양면에서 새로운 소설을 주창하는 선구적 존재로 부각된다. 그는 “The Art of Fiction”에서 당대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진단한다.

Only a short time ago it might have been supposed that the English novel was not what the French call discutable. It had no air of having the theory, a conviction, a consciousness of itself behind it-of being the expression of an artistic faith, the result of choice and comparison ... During the period I have alluded to there was a comfortable, good-honoured feeling abroad that a novel is a novel, as a pudding is a pudding, and our only business with it could be to swallow it.(286)

“The Art of Fiction”은 James의 활동단계로 볼 때 비교적 초기에 씌어진 글이며 일반적인 개념들이기는 하지만, James의 다른 에세이들보다 포괄적인 것이며, 그의 사상의 요체를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글이다.

1884년에 발표된 제임스의 “The Art of Fiction”은 엘리엇의 “전통과 개인의 재능”(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에 비견할 만큼 고전적 가치를 지닌 소설론으로, Leon Edel의 말처럼 우아하고 멋지게 쓰여진 하나의 빛나는 개인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비평가 월터 베상트(Walter Beasant)는 1884년 4월에 영국의 왕립 과학연구소에서 “예술의 일환으로서의 소설”(Fiction as One of the Fine Arts)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게 된다. 베전트는 그의 강연에서 분석학파에 대항하여 소설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소설은 기계적인 예술이 아니라 그림, 조각, 음악, 시와 같은 수준에 있는 미학적인 예술로서 그 적용 범위는 넓고 그 가능성은 끝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연조가 깊은 이 예술은 인간적 동감과 존경과 참여를 선호하고, 인류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대중적 합의를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안내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역설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소설은 정밀과 정확이라는 일반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동시대의 문제들과 당면해야 한다. 둘째, 소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story이며, story가 곧 소설의 모든 것이다. 셋째, 소설은 개인의 사적인 경험과 관찰의 결과여야 한다. 넷째, 근대 소설은 의식적인 도덕 목적을 가지고 씌어져야 한다.

James는 이러한 Besant의 견해에 반박하면서 “The Art of Fiction”에서 소설의 예술적 본질과 위치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 에세이는 James의 많은 Notebook과 서문들, 에세이, 리뷰 중에서도 소설에 관한 James의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글이다. 1884년은 James의 작품 활동시기로 볼 때 비교적 초기단계로서 이 시기의 비평들은 1890년대 이후의 비평들에서 보여지는 여러 특징이나 기법들과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이 에세이가 소설에 관한 그의 사상을 전반적으로 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체계적인 형태로서가 아닌, 사상의 편린들로 존재한다.

그리고 제임스의 이 소설론은 일견 현대소설의 비평이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이론적 주장이며, 따라서 제임스가 넓은 의미에서는 현대비평의 시발점에 위치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James의 대표적 소설이론의 선언적 의미를 지닌 “The Art of Fiction”을 통해 소설이론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II

James 스스로가 자신의 비평 에세이 “The Art of Fiction”(1884)에서 소설이 사실 위에 기초해야 하는 당위성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소설에 있어 실제 사실에 입각한 묘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James는 이 글에서 소설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삶의 실체를 묘사하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기술하면서, 환상의 세계에 몰입하는 것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의 삶을 재현해주는 “the air of reality”가 소설의 가장 큰 미덕이어야 한다고 밝힌다.

우선 제임스는 화가의 예술과 소설가의 예술에 있어서 그 유사성을 들면서 소설의 존재이유를 밝히고 있다.

The only reason for the existence of a novel is that it does attempt to represent life. When it relinquishes this attempt, the same attempt that we see on the canvas of the painter, it will have arrived at a very strange pass.(166)

인생을 재현한다는 이른바 모방의 개념에 입각하여 제임스는 회화와 소설의 유비(analogy)를 들고 있다. 즉, '그림이 리얼리티인 것처럼 소설은 역사이다'라는 말로 '시는 그림과 같다'(ut puietra poesis)는 유서깊은 주장에 일가견을 표명한 것이다. 비록 매체가 다르고, 하나는 공간예술인데 비해 다른 하나는 연계적인 시간예술이라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회화와 소설은 영감, 제작과정, 동기 등 유사한 요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생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자매 예술'(sister arts)론을 펼친 것이다.

소설의 존재 이유로 삶의 재현을 내세우면서 소설가와 화가의 예술을 구별하여, 그림은 현실로, 소설은 역사로 비유한다. 역사가와 마찬가지로 소설가는 "진리 추구"와 "인간 행위의 흔적인 과거"의 재현에 몰두한다고 지적하면서, 소설은 부과된 도덕 혹은 해피 엔딩, 선형적 규칙과 조건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성과 디테일의 진실에 존재한다고 부연한다. 그는 실제감이 소설의 가장 훌륭한 미덕임을 인정하고, 이 속에서만 소설가는 인생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소설가가 그의 형제인 화가와 경쟁하려면, 사물의 의미와 표정을 전달하는 노력에서, 그리고 인간 광경의 색과 부조와 표현과 본질을 표현하려는 노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57)

James에게 있어서 소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소설의 목적은 삶을 재현하는(represent) 것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재현(representation)"이란 단순한 모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소설은 삶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삶과 "겨루어야(competete)"한다. 이는 작가가 그의 소설에서 삶의 모습을 창조해야만 하며 이것이 성공함으로써 소설 속에서 현실의 모습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James는 "현실감(the air of reality)"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현실감은 James에게 있어 소설의 최고의 가치이며, 그는 그것을 "solidity of specification"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James의 주장처럼 소설이 'a realistic, artistic representation of life'에 그

생명이 있다면 인생이나 현실은 항상 그 구체적 행동과 움직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생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한다는 것은 그 구체적 행동의 장면(scene)을 포착하는 것이지 그것에 관한 요약이나 설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 James가 강조하는 'dramatize'의 배경도 바로 그 점에 있다. 그가 새로운 소설의 창조를 위해 고심했던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문제, 특히 인간의 심리와 의식이란 주관적 소재와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표현방법에 대한 그의 규명은 그 자신이 흠모했던 Flaubert의 명언을 다시 상기시킨다.

It's one of my principles that one must never write down one's self. The artist must be present in his work like God in Creation, invisible and almighty, everywhere felt but nowhere seen.(287)

James의 견해에서 삶을 재현하는 소설은 곧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파악된다. R. L. Stevenson은 삶과 예술을 비교하면서, 삶은 무한하고 비논리적이며 위험하고 신랄한 것인 반면, 예술이란 잘 정돈되어 있고 한정적이며 합리적이고 깨끗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James는 삶과 예술을 분리시켜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삶을 재현함으로써 창조되는 어떤 환상에 의해서 예술의 성공 여부가 결정됨을 믿었다. 즉, 그에게는 삶이란 곧 또다른 이름의 예술이었으며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모두 소설 속에서 재현될 수 있는 요소들인 것이다. James는 예술작품으로서의 소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미학적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They would argue, of course, that a novel ought to be "good", but they would interpret this term in a fashion of their own, which indeed would vary considerable from one critic to another…… they would all agree that the "artistic" idea would spoil some of their fun. One would hold it accountable for all the description, another would see it revealed in the absence of sympathy.(348)

이는 Besant가 소설가로서가 아니라 오락의 열등한 종류인 이야기 화자(sroty-teller)로 전락시킨 것을 반박한 것으로, 예술의 개념이란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여러 견해들의 공통된 생각은, 예술작품으로서의

소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설의 흥미요소들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사상은 James로 하여금 예술로서의 소설을 추구하되 그 외의 다른 어떠한 요소들도 잃지 않는 완전한 것으로서의 소설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임스의 소설론은 소설을 생명체, 즉 유기체로 보는 유기적 이론(organic theory)에 입각해 있다. 즉 소설은 그 작품의 부분 부분이 살아있는 세포처럼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형성한다고 본다. 사람들은 생명을 느끼듯이 그 생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예술을 감지 하거니와 이때 '인생의 음조와 기술, 그 이상하고 불규칙한 리듬을 포착하는 것'(catching the very note and trick, the strange irregular rhythm of life)이 바로 소설의 기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에게 소설은, 삶의 기이하고도 불규칙한 리듬을 좇아 그 운동을 우리에게 조정 없이 보여준다는, 일종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인다. 따라서 묘사와 대화물, 그리고 사건과 묘사를 대립시켜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James가 소설이 하나의 유기체라고 본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A novel is a living thing, all one and continuous, like any other organism, and it proportion as it lives will it be found, I think, that in each if the parts there is something of each of the other parts.(353)

소설은 하나의 유기체이며 각각의 부분들은 서로 공유하는 것들을 가지게 되고 이것들은 서로 연관된다는 것이다. 모든 요소들의 완전한 결합력에 대한 James의 추구는 곧 'form'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진다. James에게 있어서 form은 하나의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organism"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 James에게 organic pattern이란, 소설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controlling idea"가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균형과 비례를 가진 완전한 형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외형이 소설의 form이다. James E. Miller의 "유기적 형태란 우연적이고 자의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련

이 없지만, 재료(material) 그 자체의 본질과 관계있는 모든 것이고, 그 재료들이 제안하거나 명령하는 것"이라는 언급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유기적 형태는 모든 재료들을 최대한 중요하게 만들어서 그 재료들을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하여 만들어낸 형태의 견고함과 관계가 있는데, 이 경제성은 이후 James의 소설에서 보여지는 극적기법의 한 특징이 된다. 결국 James가 소설을 유기체라고 본 것은 예술작품으로서의 소설을 위한 완전함을 추구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보아진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James에게 Besant가 행한 소설의 구분들--인물의 소설, 사건의 소설, 이야기(story)를 구성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들--이 의미없는 것으로 여겨진 것은 당연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James는 소설에 있어 주제, 중심인물, 그리고 이미지를 낭만적 분위기로 감싸면서 동시에 실제 사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가져다주는 사실주의적 특성을 유지키 위한 어떤 탁월한 기교와 예술감각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James의 관심은 그가 사실주의적 수법과 낭만주의적 색조, 이 두 요소의 조화와 상호보완이 탁월하게 이루어져 "유기체적인 효과"(organic effect)를 가져오는 작품에 대한 염원을 강하게 품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III

베전트는 그의 강연에서 개인의 경험과 관찰의 결과가 소설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창의성의 몫을 부인하고 있지만, 제임스는 이에 반론을 제기하여 소설가의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능력, 사물의 함축을 추측할 수 있는 능력, 틀에 의거하여 전체 조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작가의 상상력과 감수성은 직접 경험의 일부이지만, 그것들 보다는 우수하다는 것이다. "경험은 결코 끝이 없고, 결코 완결되지 않는 것으로 의식의 그물에 매달려서 그 그물에 공기중의 모든 분자를 포착하는 거미줄과 같은 것"이라고 적는다.

소설을 하나의 상상력과 감수성의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때 작가의 "경험"은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James가 강조한 삶

의 실체는 작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James는 경험을 “무한함 감수성” 또는 의식의 방에 매달려 있는 일종의 “거대한 거미줄”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perience is never limited, and it is never complete; it is an immense sensibility, a kind of huge spider-web of the finest silken threads suspended in the chamber of consciousness, and catching every air-borne particle in its tissue. It is the very atmosphere of the mind; and when the mind is imaginative…… it takes to itself the faintest hints of life, it converts the very pulses of the air into revelation.(351-352)

궁극적으로 경험이 중요한 것은, 예술작품으로서의 소설을 논의할 때 James가 중요하게 다룬 개념은 “선택적 전개”인데, 경험과 선택적 전개와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선택적 전개는 예술의 본질적 과정으로써, 그 이면에서 이 과정을 부단하게 겪게 하는 것이 바로 경험이다.

Selection will be sure to take care of itself, for it has a constant motive behind it. That motive is simply experience. As people feel life, so they will feel the art that is most closely related to it. This closeness of relation is what we should never forget in talking of the effort of the novel…… In proportion as in what she offers us we see life without rearrangement do we feel that we are touching the truth; in proportion as we see it with rearrangement do we feel that we are being put off with a substitute, a compromise and a convention.(356)

작가가 자유롭게 자신의 직접적인 인상과 주관에 의해 형성된 경험을 소설이라는 하나의 틀에 투사했을 때 나타나는 삶과 예술의 연관성이 바로 소설의 핵심이다. 이 말은 결국 James가 예술이 삶의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선택적 전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술의 과정이란 포괄적이며 혼돈된 현실의 삶에 존재하는 무수한 가능성으로부터 구체적 의미를 선별해 나가는 과정이

되며, 이것은 보다 직접적으로는 삶에 혼재된 여러 가지 의미들 가운데서 본질적인 부분을 작가가 판별함을 뜻한다.

여기서 James 문학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전개는, Besant가 언급한 규칙이나 절대적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는, 삶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 인상(personal impression)과 주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작가의 경험을 이루며 James는 이 경험이 예술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제임스가 생각할 때, 리얼리티, 즉 실체의 척도란 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소설에서 작가의 비전에 의해서 너무나 짙게 채색되기 때문에 단지 한 모델로서만 제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험이 인상들로 구성된다면, 그 인상들이 바로 경험이라고 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임스가 말하는 체험이란 인생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체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 체험 내지 감수성의 체험을 일컫는다. 거대한 감수성으로 외계를 포착한다는 모방론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것을 포착하는 인간 의식의 상상적 체험을 강조하는 점에서 자연주의적 리얼리즘과는 사뭇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제임스는 비록 시골에서 사는 여자라 할지라도 상상력의 도움을 받는다면 실제 경험이 전혀 없는 군대의 젊은이들에 관한 진실도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가 말하는 체험은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도 수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power to guess the unseen from the seen, to trace the implication of things, to judge the whole piece by the pattern, the condition of feeling life in general so completely that you are well on your way to knowing any particular corner of it-this cluster of gifts may almost be said to constitute experience……(172)

그리고 만일 체험이 인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호홉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공기인 것처럼 인상이 곧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였다. 외계의 사물에 반응하는 다분히 주관적인 인간 의식의 내면적 체험 속에서 리얼리티의 영역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제임스가 체험과 동일시하는 인상은 의식의 '지향성'(intentionality)이라고 칭한 후설(Edmund Husserl)

의 현상학적 이론과 일맥 상통하는 견해로 보인다. 이 소설론에서 사건의 소설(novel of incident)과 성격의 소설(novel of character)의 구분은 잘못이라고 한 것 처럼, 제임스는 체험이 사건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체험을 의식과 같은 것을 본 것이다.

James가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이자 소재가 되는 인간적 경험(human experience)에 대해 남다른 생각을 펼쳐 보이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즉, 경험은 종래까지 인식되어 온 외적 사건이나 활동의 결과라기 보다는 인간정신의 내면성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James가 “The Art of Novel”에서 주장한 것 처럼 “What a man thinks and what he feels are the history and the character of what he does.”(66)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주목을 끄는 용어는 ‘consciousness’이다. “The centre of interest throughout Roderick Hudson is in Rouland Mallet’s consciousness, and the drama is the very drama of that consciousness.”(16) 라든가 “Place the centre of the subject in the young woman’s own consciousness, and you get as interesting and as beautiful a difficulty as you could wish.”(51)와 같은 표현에서 보듯이 성격과 주체의 전개는 모든 의식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의식이 곧 경험을 수집하는 방(“the chamber of consciousness” for collecting experience)이기 때문이다.

즉, 경험이란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인상을 모아 의식속에 저장하는 과정이며, 여기서 이들은 필요에 따라 음미되고 걸러져서 분류되어 그 개인의 느낌, 개념, 사상 등을 형성하는 데 이용된다. 따라서 James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상들이 의식속에 집적되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소설의 기능인 인생을 표현하는(representing life) 참 뜻이며, 새로운 소설은 과거의 그것에 비해 plot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의식 혹은 정신의 특성인 의외성, 우발성, 변용성을 그 주요한 소재로 다루게 된다는 것이다. James는 소설의 구성요소 가운데 plot나 setting보다 characterization을 더 우위에 두며 소설의 실마리는 하나의 성격, 특이하고도 운명적인 성격을 설정함으로써 시작된다고 주장한다.(48-52) 이것은 작품에서 인물과 환경이 어울려 엮어내는 우여곡절의 story보다는 그 motive가 되는 “the atmosphere of the mind”를 우위에 두려는 그의 주장과도 부합된다.

IV

Henry James는 인간성, 인간사, 그리고 인간 정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서의 상상력의 기능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James에게 창조적 상상력이란 삶의 가장 두드러지지 않는 부분이라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구체화시켜 보여줄 수 있는 힘을 의미하였다. 작가의 자유와 창조적 상상력에 관해 언급하면서 “창조적”, 혹은 “상상적”이라는 용어들이 마치 상상적 요소가 많은 로맨스를 옹호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삶의 실제 묘사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견해와 충돌을 일으키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James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실체를 어떻게 하면 작품 속에서 그렇듯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작가는 소설 작품 속에서 삶의 실체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그의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보다 구체적이고도 현실감 있는 또다른 하나의 삶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것이 James가 창조적 상상력을 강조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세부사항의 진실을 강조한 자신의 언급이 이를 뒷받침한다.

I am far from intending by this to minimise the importance of exactness-of truth of detail…… the air of reality(solidity of specification) seems to me to be the supreme virtue of a novel…… If it be not there they are all as nothing, and if these be there, they owe their effect to the success with which the author has produced the illusion of life.(355-356)

즉 James는 상상력을 강조함으로써 세부사항들의 진실의 중요성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감 있게 묘사된 소설에서 작가가 창조한 또 하나의 삶이라는 환상을 볼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여기에서 사실주의에 대한 James의 변론이 있다. 그는 소설가는 단순히 사물들의 외관만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까지도 묘사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표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풍경들의 재료까지도 소설가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처럼 의식적, 무의식적 단계에서 신비스럽게 작용하는 “상상”의 개

념이 James를 동시대의 다른 사실주의자들과 분리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사실주의에 대한 기준을 경험이나 삶 자체의 이해할 수 있는 현실에 다 둔 반면, James는 그 기준을 작가나 예술가의 내면에 두거나, 상상이라는 하나의 도가나가 경험과 삶으로부터 모여진 재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 내는 것에 두었다.

또 제임스는 소설에 있어서 사상과 형식의 관계를 바늘과 실에 비유하였다.(178) 그런데 이러한 내용과 형식의 문제는 기법 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그의 특이한 견해를 보여준다. 그는 앞서 말한 소설과 그림의 자매 예술을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해서 그림이 도덕적일 수 있으며 또는 비도덕적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줄 것인가고 의문을 제기한다.

“The Art of Fiction”에서 제임스는 특히 소설이 ‘의식적인 도덕적 목적’(conscious moral purpose)을 지녀야 한다는 베상트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소설 기법의 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제작(execution)상의 문제이니만큼 도덕성의 문제와는 별개인 것(questions of art are questions of execution; questions of morality are quite another affair)(181)이라 하였다. 그래서 가이스마(Maxwell Geismar)는 극적 장면, 시점, 중심 설정 등 제임스의 독창적인 소설 기법의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위대한 소설가들이 우리에게 항상 제공해야 할 교화, 즉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439) 때때로 비평가들이 이처럼 제임스의 소설에서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공박하기도 하지만, 엘리엇은 제임스를 당대의 최고 지성인으로 칭하면서 제임스가 주로 도덕적 행동을 하는 순간에 있어서의 인간 의식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를 도덕가라고 칭하였다.(490) 또한 에델 역시 제임스를 가리켜 위대한 심리학자일 뿐만 아니라 맹렬한 도덕가라고 단호하게 말한 바 있다.(ix) 제임스는 “The Art of Fiction”에서 당시의 소설가들이나 독자들에게서 발견하는 도덕성과 교훈성, 이를테면 소설의 결말을 무슨 훌륭한 만찬 후에 드는 후식이나 아이스크림처럼 여겨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지면 그 소설이 좋다는 식의 판에 박힌 도덕성에 반발하고 있다. 의식적으로 도덕적 목적을 내세우는데 대해 그는 분명히 반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소설에서의 도덕성을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다.

There is one point at which the moral sense and the artistic

sense lie very near together; that is in the light of the very obvious truth that the deepest quality of a work of art will always be the quality of the mind of the producer. In proportion as that intelligence is fine will the novel, the picture, the statue partake of the substance of beauty and truth. To be constituted of such elements is, to my vision, to have purpose enough. No good novel will ever proceed from a superficial mind; that seems to me an axiom which, for the artist in fiction, will cover all needful moral ground.(181-182)

그러므로 제임스에게 있어서 도덕성은 명백한 교훈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옳고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라 느낌과 감정의 문제이며, 그것은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어떤 성질인 것이다. 예술작품에서의 도덕적 감각이란, 「어느 여인의 초상」 서문에서 주장하듯이,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관련된 '감지된 삶'에 의존한다고 보는 것이다. 작품의 도덕성은 바로 예술가의 으뜸가는 감수성(primé sensibility)의 특질과 역량에서 오는 것이라 보아 작가가 창작을 위한 강한 인상적 체함을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법칙 따위에 얽매임이 없이 자유롭게 삶의 인상을 포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머슨(Ralph Waldo Emerson)과 제임스가 둘 다 마음 자체의 과정에 대한 자각, 즉 의식을 주요 주제로 삼았지만, 에머슨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지각이 우선적으로 도덕적 법칙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던데 비해, 도덕가인 제임스에게는 심미적 경험이 우선적이었다고 한 매티슨(F. O. Mattiessen)의 견해를 상기할 만 하다.(32) 작가의 의식이 깊고 섬세한 양질의 것이면 거기서 자연히 도덕성이 나타난다는 것이 제임스의 논지이다. 그는 베상트의 소설의 법칙과 같은 교조주의적 소설론, 의식적인 도덕적 목적 따위를 배격하고 도덕적 감각과 예술적 감각의 합일을 모색했던 것이다.

V

“The Art of Fiction”은 James의 여러 업적들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상의 요체들을 담고있지만 그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 에세이 속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이후의 James의 소설이론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예시하고 있다. 즉, 극적 기법의 자

질이라든지, 외면적 사실 외에 심층적인 심리에의 관심 등이 이러한 것들이다.

James에게 당면한 문제는 소설에 그 독자적 의식과 예술적 신념이 결핍되어 있음을 사계에 인식시키는 일이었다. 즉, 영국소설은 당대의 프랑스소설의 경우와는 달리 논의할 여지가 있는 대상이 아니며 그저 전통을 고수해 나가면 족하고 달리 취급하거나 재고해 볼 여지가 없다는 당시의 팽배한 의식을 깨뜨리는 일이 그것이다. 따라서 그는 당대의 여러 소설가들의 태도와 그들의 작품에 공격을 가한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동시대의 영국 인기작가였던 Walter Besant가 그의 강연을 통해서 피력했던 소설론에 대해서 공박하는 가운데 자기의 새로운 주장을 몇가지 제시하게 된 것이 James의 “The Art of Fiction”의 내용을 이룬다. 여기서 James는 소설이 갖추어야 할 예술성으로 삶 그 자체에 대한 충실한 반영 -Flaubert, Balzac의 경우처럼 당시의 구체적 생활상을 반영하는 ‘the air of reality’의 필요성-과 제재선택의 자유와 작품을 엮어주는 모든 부분들이 그 최종적인 효과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유기적 전체성(“A novel is a living thing, all one and continuous like any other organism.”)과 작품의 도덕성은 작가의 의도적인 도덕적 목적에서 보다 작품제작에 임하는 작가의 성실성, 진지성에서 자연히 드러난다는 것 등을 역설하고 있다.

실제로, 제임스는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중대한 고비에서 진리를 찾고자 노력했고 그 진리에 가장 정확하게 연관된 상상력과 감수성을 부여하여 그것을 가장 생생하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재현한 작가라 하겠다. 예술의 소재인 인생은 그 자체로 형식을 갖추지 못한 끝없는 당황과 혼란으로 이어지지만, 예술가의 상상력으로 재현된 예술은 인생의 갈등과 대립과 혼란을 선별하고, 형식화 하고, 명료화해서 그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고 제임스는 굳게 믿고 있다. 그는 지성과 감성의 형식을 강조하는, 실로 너그럽고 자유로운 지성과 감성의 소유자라 하겠다.

Works Cited

- 이혜경. (1996). *문학이론과 비평의 조율*. 서울 : 동인
 정태진. (1997). *영미 소설 강의*. 서울 : 동인
 Besant, Walter.(1977). *The art of fiction* (London : Chatto & Windus, 1884). Mark Spilka, "Henry James and Walter Beasant : The Art

- of Fiction Contraversy*" in *Towards a Poetics of Fiction*
(Blomming and London : Indiana UP)
- Daugherty, Sarah B.(1981). *The literary criticism of henry james*.
NewYork : Ohio UP.
- Edel, Leon.(1953). *The life of Henry James : The United Tears :
1843-1870* (London : Rupert Hart - Davis)
- Edel, Leon.(1965). *The Henry James reader* (New York : Charles
Seribner's Sons)
- Geismar, Maxwell.(1964). *Henry James and his cult* (London : Chatto &
Windus)
- Halperin, Johned.(1974). *The theory of the novel*. NewYork : Oxford UP.
- Holden, Alan.(1964). 'T. S. Eliot on Henry James', *PMLA*, Vol. 79
- James, Henry.(1963). *Selected literary criticism*, (Ed.) Morris Shapora
(Cambridge : Cambridge UP)
- James, Henry.(1981). "*The art of fiction*", in *The american tradition in
literature* (N. Y. : Random House), (eds.) Souley Tradley, George
Perkins, etc, Fifth edition
- James, Henry.(1986). *The art of fiction*, in *The art of criticism : Henry
James on the theory and the practice of fiction*, (eds.) William
Veeder and Susan M. Griffin (Chicago UP)
- James, Henry.(1962). *The art of the novel*. (Ed.) Richard Blackmur.
NewYork : Charles Schibner's Sons
- Martin, Timothy P.(1980) 'Henry James and Percy Lubbock : From
Mimesis to Formalism', *Novel(Fall)*
- Mattiessen, F. O.(1966). Henry James : *The Major Phrase* (New York :
Oxford UP)
- Miller E, James.(1972). *Theory of fiction : Henry James*. Lincoln :
Nebraska UP.
- Perosa, Sergio.(1983). *American theories of the novel : 1793-1903*. New
York : New York UP.
- Ward, J. A.(1969). *The search for form*. Chapel Hill : North Carolina UP.